

전남도, 농정예산 1조원 시대

신 소득원 창출할 ‘미래 생명산업’ 집중 육성
쌀 위주에서 친환경농업 연계 융복합산업으로

전남도는 민선7기 들어 추진해온 각종 농정사업들을 신 소득원을 창출할 미래 생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농정예산으로 996억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로 전남배경이 예상되는 2708억원 까지 포함하면 1조 2664억원으로 늘어 농정예산 1조 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쌀 위주에서 과수,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

운’, ‘친환경 경관 융복합농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이 보유한 유기농 생태환경에 체험·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융복합사업 확산으로 신 소득원도 창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트랙터, AI 자동수확기 등 첨단 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 농업기계화·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 고효율 무인·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고흥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수출 위주 생산유

통 단지로 조성, 국내 제일의 혁신 성장모델로 만드는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확대에도 중점을 둔다.

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연구, 현장실증,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비를 260억원으로 늘려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지지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상설매장(5개

소) 확충과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시장에 전남 지역 농산물을 런칭하는 등 신유통로 발굴을 진행한다.

중·소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4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전남산 뇌지 생축 흥종 수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합평 이전 등도 추진한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를 민선7기 전남농정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인 농업을 반드시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구 “홈페이지서 신종 코로나 현황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자 구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뉴는 △동구발생현황 △대응상황보고 △예방행동수칙 △산별 진료소 등 5가지 세부메뉴로 구성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동구발생현황’은 관내 주민 중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농동 간접 대상자 현황을, ‘대응상황보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서별 대책, 관내시설 임시휴관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서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광주 서구가 산불방지를 위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1. 24~5. 15.)을 설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서구는 효율적인 산불방지 운영을 위해 노후 진화차량 교체 및 산불 전문 감시 인력을 선발·배치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일(4.15.) 등 주요 시기별로 산불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산불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남구 “필라테스하면서 대사증후군 완치하세요”

광주 남구는 필라테스 운동을 통한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오병 통치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오병 통치교실 참가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필라테스를 통한 신체활동과 만성질환 등 통합건강 교육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북구,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1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사)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한 제7회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다른 지방정부에 귀감이 될 만한 정책 사례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북구는 지난해 6만 6400여 명에 달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주거상태 등을 조사해 (고)위험군 1707명을 발굴·관리하고 IoT(사물인터넷) 설치, 모바일 앱 활용 서비스 제공 등 고독사 예방에 주력했다.

광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나서

광주 광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지역사회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16일을 ‘일제방역 집중기간’으로 지정,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종합대책은 광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라는 수동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민관협동 방역 등 능동적인 활동으로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출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청정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것.

10일 오전 8시 현재, 광산구는 89개 장비와 144명을 투입해 63곳의 공공방역을 마쳤다. 광산구민도 306명이 참가해 251개 장비로 137곳 저율방역을 마친 상태다.

임택택 기자

광주5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내달부터 인상

자치구 재정부담에…음식물쓰레기 감소 기대

3월부터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

인상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용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

동주택은 kg당 63원에서 95원으로 각각 오른다.

광주지역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처리 수수료는 낮아 자치구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했다.

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5개 자치구의 수수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광주의 주민부담률은 2017년 27.6%, 2018년 25.6%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10일 “쓰레기 줄이기는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신종 코로나’ 진단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점검

“신속·정확한 검사로 시민 안전 지켜주길”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기관인 서구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연구원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바이러스 검사과정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를 도출해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곧바로 실험실 검사 체계를 구축해 하루에 150명 이상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디”고 밝혔다.

서구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26명의 현장대응요원이 4개조로 휴일도 반납한 채 24시간 실험실 상시 비상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증 검사를 수행 중이다.

특히 6시간 이내에 감염증 검사

결과를 도출해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곧바로 실험실 검사 체계를 구축해 하루에 150명 이상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디”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는 생물안전 3등급 밀폐실험실에 전화를 걸어 검사를 진행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천의 인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일은 근무 시간!!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움직임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숙님께서 제작한 슬로건입니다.

“건강보험, 월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해당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www.nhis.or.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